

농어촌공 강화웅진지사, 토지, 선 임대, 후 매도, 사업 신청자 모집

기사입력 2025.02.17 15:07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지사 전경 사진=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웅진지사는 오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선 임대, 후 매도, 사업 신청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선 임대, 후 매도, 사업은 농지구입을 희망하지만 농지매입자금이 부족해 농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사가 먼저 농지를 매입한 후 장기임대(최장 30년)하고, 원리금 상환이 완료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마련하는데 있다고 관계자는 말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만 39세 이하 청년농업인으로 신청자중 우선순위에 따라 상의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지원대상 지역은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농지이며, 신청가능 한 농지는 1,000㎡ 이상의 농업진흥지역 안팎의 논·밭·과수원이면서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대상 농지로, 농지소유자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 대상자에 해당해야 한다.

1차 신청기간 종료 후, 2차 신청기간은 2025년 4월 28일부터 5월 13일이다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웅진 양희충 지사장은 "어려운 청년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 환경 조성 과 정착을 위하여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했다. 이어, "농어촌이 노령화가 되고 있다. 이제는 도시의 젊은이들이 농촌으로 귀농해 젊은 농촌으로 만들어 가는데 우리 공사가 일조했으면 한다"라고 했다.

유영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e63@g-enews.com

<저작권자 © 글로벌이코노믹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